



IWPG

글로벌 여성평화포럼

GLOBAL WOMEN'S
PEACE FORUM

발표자료집

아시아 - 태평양

7월 20일(월) 11:00

아프리카 · 유럽

7월 20일(월) 17:00

아메리카

7월 21일(화) 01:00

남아시아 · 중동

7월 21일(화) 15:00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포럼

아시아-태평양 지역

7 월 20 일 (월) 02:00 GMT

패널 토론 1

멜라니 시아 람비노

디렉터, 필리핀 여성 클럽 전국 연합 | 필리핀

2026 평화 구축, 여성 역량 강화

캐롤 쇼

디렉터, 국제 액세스 네트워크 | 호주

인권의 렌즈로 바라본 평화

카나카기리 야샤스와니

설립자, 라오프 컨설팅 | 인도

수습나 명상 - 정신 건강을 향한 여정

무즈간 타헤리

설립자 겸 CEO, 유나이티드 서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 호주

함께 만드는 평화: 지역적 과제와 여성의 목소리 해결

패널 토론 2

캐슬린 테인

비무타 부다 대학교 교수 | 미얀마

폴뿌리에서 글로벌로: 평화를 위한 미얀마 여성의 목소리 증폭

흐영 응우옌

강사, 라 트로브 대학교 | 호주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다문화 여성 리더십 발휘: 포용적 직장을
위한 증거 기반 전략

수라이야 카마루자만

강사, 시아 쿠알라 대학교 | 인도네시아

회복을 넘어: 아체 지역의 평화와 지역사회 회복력을 위한 여성
리더십 확대



패널 토론 1

2026 평화 구축, 여성 역량 강화



멜라니 람비노

디렉터, 필리핀 여성 클럽 전국 연합 | 필리핀

연락처:

atty.melanieslambino@gmail.com

멜라니 람비노 변호사는 법, 경영경제학, 기업 지배구조, 공공행정 및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폭넓은 전문성을 갖춘 저명한 필리핀 변호사이자 거버넌스 전문가, 포용성 옹호자이다. 그는 산 세바스티안 칼리지-레콜레토스 법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아시아태평양 대학교에서 비즈니스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또한 파티마 성모 대학교에서 보건 관리 전공으로 공중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거버넌스와 공공 서비스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는 전략적 비즈니스 경제학, 기업 지배구조, 입법 거버넌스, 공공 조달 분야에서 경영자 교육 과정과 전문 자격증을 취득했다. 전문 분야는 법률 실무, 공공 행정, 규제 업무, 기관 거버넌스에 걸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강력하고 존경받는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필리핀 전국 여성 클럽 연합회(NFWCP)의 이사회 위원이며, 평가시안 여성 클럽의 회장을 맡고 있어 여성의 리더십, 역량 강화, 시민 참여 및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산 미겔 코퍼레이션(SMC)의 주요 자회사인 민다나오 골판지 주식회사(MinCorr)의 이사회 이사로 재직 중이다. 한편, 지난 8년 동안 메트로폴리탄 상하수도 시스템(MWSS)의 이사회 이사로도 활동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녀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며, 거버넌스, 감사, 리스크 관리, 양도권 모니터링을 총괄하는 주요 이사회 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지난 5년 가까이 환경자연자원부(DENR) 산하 시노칼란-다구판 강 유역 수질 관리 구역(SDRS-WQMA)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주요 이니셔티브를 주도해 왔으며, 중앙 정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수질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며, 시노칼란-다구판 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복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다. 중앙 정부에서의 직무 외에도, 그는 평가시안 주 개발 위원회(PDC)의 여성 대표로서 지역 및 지방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으며 지속 가능한 주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윤리적 리더십, 건전한 거버넌스, 공공 봉사에 대한 헌신으로 인정받은 그는 국가 및 지방 기관에서의 리더십을 통해 건전한 공공 정책, 환경 보전, 기업 지배구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초록

이 발표는 여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존중함으로써 여성의 역량 강화가 어떻게 지속적인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지를 조명한다. 또한 여성들이 두려움이나 차별 없이 대화, 리더십,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평등, 포용, 그리고 의미 있는 참여를 통해 여성들은 강력한 평화의 주체가 되어, 더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패널 토론 1

인권의 렌즈로 바라본 평화



캐롤 쇼

디렉터, 국제 액세스 네트워크 | 호주

캐롤 쇼는 국제 접근 네트워크(International Access Networks)의 디렉터이자 아시아태평양 여성 감시단(APWW)의 유엔 담당 최고경영자(CEO)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 및 평화를 촉진하는 데 주력해 온 리더십 역할을 수행해 온 실적을 갖춘 선구적인 경영자이자 전략가이다.

또한 그는 교차적 인권 프레임워크 내에서 활동하며, 국가 및 풀뿌리 단체들이 사회 정의, 형평성, 여성과 소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참여하고 옹호할 수 있는 역량을 지원한다. 그는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증진하고, 성평등이 반영된 정책과 자금 조달 및 정의를 보장하며, 여성의 자원 접근 및 발전에 대한 구조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운동 구축 분야의 선도적 사상가이다.

연락처:

carole.shaw@gmail.com

초록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선 개념이다. 평화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우리가 공유하는 땅과 공동체, 그리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며 온전히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게 해주는 여건에 반영된다. 평화는 또한 치열한 투쟁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정치적 목표이기도 하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영토권과 해양 이익을 둘러싼 경쟁과 분쟁이 급속히 심화되고 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과 강대국 간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맞물리면서 오판과 갈등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압박은 지역 내 안정적인 국가와 정치적으로 취약한 국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전쟁에서 평화로 전환하거나 정치적 불안정기를 겪을 때, 인권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은 폭력의 종식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다. 분쟁과 전쟁의 영향을 받는 사회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사회적 분열의 위험이 높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성들의 참여, 거버넌스 및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은 평화 협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 더 폭넓은 관점을 제공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증진시킨다.



패널 토론 1

수습나 명상 - 정신 건강을 향한 여정



카나카기리 야샤스와니

설립자, 라오프 컨설팅 | 인도

카나카기리 야샤스와니는 호주 연방 정부와 빅토리아 주 정부에서 모두 경력을 쌓은 지역사회 참여 전문가이자 명상 교육자이다. 그는 지방정부부 장관, 여성부 장관, 가정폭력 예방부 장관, 교육부 장관, 청소년 사법부 장관, 피해자 지원부 장관, 범죄 예방부 장관을 역임한 나탈리 허친스 의원의 사무실도 포함해 호주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다. 공공 서비스 및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그는 정신 건강, 사회 정책, 평화 구축이 서로 맞닿는 지점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됐다. 그는 명상을 정서적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연민이 넘치는 공동체를 조성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에 기여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실천법으로 주창하고 있다.

연락처:

kyashika13@gmail.com

초록

정신적 평화는 가정, 지역사회, 국가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이다. 이 발표는 수습나 크리야 명상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경계를 조절하며, 정서적 회복탄력성, 연민, 내적 균형을 기르는 데 있어 어떻게 실용적이고 증거 기반 접근법을 제공하는지 탐구한다. 개인의 의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명상은 집단의 웰빙과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를 향한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패널 토론 1

함께 만드는 평화: 지역적 과제와 여성의 목소리 해결



무즈칸 타헤리

설립자 및 최고경영자, 유나이팅 서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 | 호주

무즈칸 타헤리는 수상 경력이 있는 지역사회 지도자이자 유나이팅 서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의 설립자 겸 CEO이다.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지역사회, 난민, 이민자, 여성, 장애인 지원을 위한 그의 헌신은 여러 권위 있는 상을 통해 인정받았다. 2025년에는 뛰어난 인도주의적 봉사 활동과 사회적 포용에 대한 헌신을 인정받아 NSW 인도주의 상을 수상했다. 또한 2026년에는 펜리스 시의회 시장 지역 영웅상 후보에 지명되어, 서부 시드니 지역사회에 미친 탁월한 리더십, 옹호 활동 및 긍정적인 영향력을 인정받았다. 그는 자신의 비전과 흔들림 없는 헌신을 바탕으로 평등과 역량 강화, 그리고 더욱 강력하고 유대감 있는 지역사회를 위해 계속해서 앞장서고 있다.

연락처:

ceo@unitingcircle.org.au

초록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부재가 아니라, 정의와 포용,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실현된 상태이다. 호주는 평화로운 국가로 여겨지지만, 지역사회는 세계적 사건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난민, 이민자, 그리고 문화적·언어적 다양성을 지닌(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CALD) 지역사회는 전쟁, 박해, 강제 이주, 차별, 폭력의 지속적인 영향을 여전히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사람들이 국경을 넘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개인, 가족, 지역사회에 계속 영향을 미친다.

여성들은 이러한 평화 관련 문제들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다. 여성은 종종 성별에 기반한 폭력, 강제 이주, 교육 및 고용 기회의 제한, 경제적 불안정, 리더십 및 의사결정에 대한 장벽을 경험한다. 많은 난민 및 이주 여성들은 또한 언어 장벽, 사회적 고립, 문화적 적응 문제, 그리고 트라우마의 지속적인 영향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그들의 웰빙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끊임없이 놀라운 강인함을 보여주며 가족을 재건하고, 사회적 결속을 다지며, 지역사회 내에서 평화를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시스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 해결이 여전히 어렵다. 또한 무력 분쟁, 불평등, 차별, 허위 정보, 그리고 리더십 분야에서 여성의 저조한 참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 많은 지역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은 낙인, 두려움, 그리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은폐된 채 남아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해결책 마련 과정에서 여성들이 동등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연사는 유나이팅 서클 다문화 커뮤니티 센터의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로서, 지역사회 주도의 이니셔티브



브가 어떻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해 왔다. 여성, 가족,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을 지원하는 문화적으로 민감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는 교육, 역량 강화, 협력, 지역사회 참여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했다. 여성에게 주도하고, 참여하며,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기회가 주어지면, 그들은 평화, 회복력, 사회적 포용을 위한 강력한 옹호자가 될 수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문화 협력, 지역사회 파트너십, 여성 리더십을 통한 평화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또한 지역 단체, 정부, 교육 기관, 시민 사회가 어떻게 협력하여 다양성이 존중되고 모든 개인이 번영할 기회를 갖는,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조성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세계여성평화그룹(IWPG)의 비전은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준다. 여성의 리더십에 투자하고, 평등을 증진하며,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문화 간 대화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분쟁에 대응하는 단계를 넘어 신뢰, 이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지역사회 수준에서 시작된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모든 여성, 모든 가족, 모든 지역사회가 존엄과 안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패널 토론 2

풀뿌리에서 글로벌로: 평화를 위한 미얀마 여성의 목소리 증폭



캐슬린 테인

교수, 위룻띠 불교 대학교 | 미얀마

연락처:

kathleenthein@gmail.com

캐슬린 테인은 양곤 대학교, 시트웨 대학교 및 여러 국제 학교에서 35년 이상의 ESL/IELTS, EAP 교육 경력을 쌓았으며 이후 몇몇 국제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문화원이 주관한 영어 교사 교류 프로그램(ELTeCS)의 회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며,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여러 워크숍과 발표,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는 아메리칸 센터의 추천을 받아 2004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영어 교사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또한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에서도 영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한 바 있다. 2009년에는 캐나다에서 열린 TESOL 집중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2012년 MmTESOL의 창립자 중 한 명으로, 15년 넘게 영어 교육(ELT) 분야에 종사해 왔다. 그 후 2015년에 '잉인 메이 힌두 여성 네트워크'를 설립하여 여성의 역량 강화와 성평등을 촉진해 왔다. 2019년에는 '미얀마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 리더'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영국문화원이 선정한 리더 중 한 명으로 꼽혔다. 또한 2019년에는 미얀마 힌두 청년 협회로부터 자선상을 수상했다. 2019년에는 '성평등과 교육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패널리스트로 유엔에 초청받았다. 또한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스위스,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성평등과 교육의 중요성' 워크숍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그는 작년 사가잉 대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기부금을 직접 전달했다. 그는 최근 양곤 바호 사립학교 교장직에서 은퇴했다. 현재 그는 영어 강사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위룻띠 불교대학교 영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13년 전부터 HWPL이 주최한 수많은 행사에 힌두교적 관점을 대변하는 초청 연사로 참여해 왔으며, IWPG의 핵심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미얀마 내 여러 지역사회와 단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초록

이 발표는 미얀마의 다양한 민족 집단에 속한 여성 평화 구축자들의 실제 사례를 다룬다. 이 여성들이 인권 침해 사실을 고발하고, 긴급 식량과 의약품을 전달하며, 분열된 지역사회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극심한 위험에 맞서고 있는지 보여준다. 남성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공식 평화 회담이 중단된 가운데, 지역 여성들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실질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고 있다.

발표에서 다루지는 연구들의 주요 발견점은 지역 여성 단체들이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와 사람들이 실제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종종 이러한 중요한 정보를 간과한다. 이는 이 여성들이 유엔과 같은 국제 기구와 직접 소통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논문은 지역 여성들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 전달되는 것을 가로막는 세 가지 주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지역 단체들이 국제 자금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2. 언어 및 인터넷 연결 문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렵다.
3. 여성 활동가들은 심각한 안전 위협과 공격에 직면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사는 세계 지도자들이 미얀마에 평화를 가져오려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 기구들은 최고 지도자들의 합의만을 기다리기보다, 지역 여성 네트워크에 자금을 지원하고, 보



호하며, 직접 협력해야 한다. 본 발표는 지역 여성들이 세계 지도자들에게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마련하고, 자금 지원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글로벌 정책 입안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미 현장에서 평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여성들을 지원하지 않고서는 미얀마에 지속적인 평화가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패널 토론 2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다문화 여성 리더십 발휘: 포용적 직장을 위한 증거 기반 전략



혜은 응우옌

강사, 라 트로브 대학교 | 호주

후웅 응우옌 박사는 호주 라트로브 대학교의 강사이자 연구원이다. 그의 연구는 리더십, 다양성과 포용성, 이민자 경력, 여성 리더십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민자 및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조직과 지역사회가 인재를 더 잘 발굴하고, 체계적인 장벽을 줄이며, 리더십으로 나아갈 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한다. 연구 결과를 실무에 적용하는 데 열정을 쏟고 있는 응우옌 박사는 산업계, 정부,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평화와 사회적 결속을 뒷받침하는, 보다 포용적인 직장 환경과 더 견고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락처:

H.Nguyen9@latrobe.edu.au

초록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를 넘어, 사람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기여할 수 있으며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갖는 공동체를 조성함으로써 구축된다. 호주 내 이민자 및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여성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연사의 연구 결과와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본 발표는 소속감, 인정, 그리고 부문 간 파트너십이 어떻게 여성의 리더십 잠재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탐구한다. 또한, 더 강력하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 고용주, 대학 및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패널 토론 2

회복을 넘어: 아체 지역의 평화와 지역사회 회복력을 위한 여성 리더십 확대



수라이아 카마루자만

강사, 시아 쿠알라 대학교 | 인도네시아

약력 미수록

연락처:

sk1708@gmail.com

초록

아체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무력 분쟁, 쓰나미 재해, 그리고 위기 이후의 회복 과정은 사회 재건이 단순히 인프라 복구와 경제 회복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었다. 회복은 또한 신뢰 재건, 사회적 관계 강화, 취약 계층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체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폭력 생존자를 지원하며, 지역사회를 결집시키고, 평화를 증진 및 유지하며, 환경을 보호하고, 가정의 생계를 뒷받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비공식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여성들이 제도적 및 공공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강력한 지위를 확보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발표는 여성들이 평화 구축과 지역사회의 회복력 강화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의 풀뿌리 리더십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권리 옹호, 생존자 지원, 천연자원 관리, 재난 대비, 기후 변화 대응 분야에서 여성들이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발표는 여성들의 지역 차원에서의 주도적인 활동을 제도적 지원, 공공 정책, 지속 가능한 자금 조달, 그리고 부문 간 협력과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제안된 모델은 의사결정에 여성 참여 유도, 지역사회 기반 여성 네트워크 강화, 경제적 자립 및 사회 보장 지원, 평화 교육 및 재난 대비 확대, 정부 기관, 대학, 시민사회단체, 종교 및 전통 지도자, 청년 단체 간의 협력 구축이라는 다섯 가지 주요 조치에 중점을 둔다.

아체의 경험은 또한 여성의 리더십 강화가 모든 지역사회에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각 접근 방식은 지역적 여건, 문화, 지역사회 요구, 신뢰받는 네트워크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차원의 여성들은 지식에 대한 접근권, 의미 있는 활동 공간, 의사결정에서의 실질적



인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그들의 풀뿌리 활동은 공식적인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자금 지원과 연계되어야 한다. 여성의 기여가 더 이상 비공식 노동으로만 취급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 역량 강화, 세대 간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 회복을 넘어서는 것은 여성을 단순한 수혜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평화롭고 회복력이 강하며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기후 관련 과제에 더 잘 대비된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데 있어 리더이자 핵심 동력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포럼 아프리카/유럽 지역

7 월 20 일(월) 08:00 GMT

패널 토론 1

카르멘 마갈론

명예회장,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WILPF)
스페인 | 스페인

재무장과 전쟁의 정상화에 맞서는 여성들

모니카 케케 와네

매니저, 가나안-루타와 협동조합 | 카메룬

분쟁을 넘어: 카메룬 영어권 위기(북서부 지역), 2016-2026 - 젠더적 영향, 구조적 장벽, 그리고 포용적 평화를 향한 길

우멘조 바니아 안돔베니

회장, 젠더 및 장애 문제 증진 협회(APGDI)
카메룬 | 카메룬

전쟁의 부재를 넘어: 카메룬에서 평화 과제가 여성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 고찰

켄 줄리엣 치

프로젝트 매니저, 카메룬 장로교 평화 사무소 | 카메룬

바멘다 지역의 가장 시급한 평화 과제인 십대 약물 남용 및 원치 않는 임신: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결이 어려운 이유

패널 토론 2

사넬 아리칸

행정서비스국장, 문화관광부 | 튀르키예

문화와 예술을 통한 여성 주도의 평화 문화 조성

레지나 무티루 므웬드와

평화 및 젠더 전문가,
국가결속통합위원회(NCIC) | 케냐

생존을 넘어: 분쟁 지역 여성에게 안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 케냐 바링고 카운티 사례

라벨로손 치우르손

전국 위원장, 사회정의연합(CO.JUSTI.S)
마다가스카르 | 마다가스카르

그녀의 목소리, 우리의 평화: 지역 행동에서 정책 개혁까지의 여성 리더십

로바하니트라 이다

전국 위원장, 사회정의연합(CO.JUSTI.S)
마다가스카르 | 마다가스카르

야나 메룬코바

설립자 겸 CEO, 유어찬스 o.p.s. | 체코

교육을 통한 통합: 비즈니스 및 기업이 정신 발전을 위한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빅토리아 도누

설립자 겸 회장, 몰도베니.cz | 몰도바

지역사회, 문화, 소속감을 통한 평화 구축: 몰도바와 체코의 경험과 교훈



패널 토론 1

재무장과 전쟁의 정상화에 맞서는 여성들



카르멘 마갈론

명예회장, 국제여성평화자유연맹(WILPF) 스페인 | 스페인

약력 미수록

연락처:

carmenmagallon@gmail.com

초록

전쟁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이다. 우리는 전쟁을 '정상화'할 수도 없고, 무기 지출을 늘릴 수도 없다. 평화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 역사적으로 여성 단체들은 이러한 평화의 목소리 중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해왔다. 평화주의 페미니즘은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탄생했다. 이러한 평화 구축자들의 유산은 소중히 간직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하다. 유엔과 국제법을 수호하는 동시에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 세상이 정글로 변해서는 안 된다.



패널 토론 1

분쟁을 넘어: 카메룬 영어권 위기(북서부 지역), 2016-2026 - 젠더적 영향, 구조적 장벽, 그리고 포용적 평화를 향한 길



모니카 케케 와네

매니저, 가나안-루타와 협동조합 | 카메룬

모니카 케케 와네는 인도주의 및 지속 가능한 개발 전문가, 리더십 코치, 평화 대사이자, 봉사와 신앙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데 헌신하는 전도사이다. IWPG의 인증을 받은 그는 시민 사회 단체에 평화 구축 도구를 제공하고, 풀뿌리 차원의 분쟁 해결을 촉진한다. '글로벌 골즈 커넥션'의 여성 역량 강화 코디네이터이자 '가나안-루타와 협동조합'의 매니저로서, 그는 지속 가능한 농업, 혁신, 리더십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카메룬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25주년 기념 행사에서, 이 결의안의 4대 기둥에 대한 데이터 검증 및 권고안 마련에 기여했다. 평화, 리더십, 지속 가능성, 그리고 화해의 복음을 지침으로 삼는 그는 지역 사회가 변화의 주체가 되도록 영감을 주고 있다.

연락처:

monicakeke44@gmail.com

초록

거의 10년 동안 카메룬의 영어권 지역(북서부 지역)은 주민들의 회복력, 결의, 그리고 희망을 극한까지 시험해 온 장기적인 위기를 겪어 왔다. 2016년 이후, 더 큰 형평성과 인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으로 시작된 사태는 분리주의 무장 단체와 국가 보안군이 개입된 복잡한 분쟁으로 발전했다. 다양한 평화 구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멘다와 더 넓은 북서부 지역 전역의 지역사회는 즉석 폭발물(IED) 공격, 납치, 학교 폐쇄, 주민 강제 이주, 그리고 일상생활을 마비시키는 반복적인 '유령 도시' 제한 조치로 인해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평화, 정의, 존엄성,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열망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이어지고 있다. 많은 현지 인사들이 지적했듯이, "위기 지역의 주민들은 여전히 대화 이전과 다름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발표는 이러한 지속적인 우려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카메룬 영어권 지역(북서부 지역)에서 평화가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가?

본 발표는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차원을 통해 이 위기를 살펴본다. 첫째, 안정성을 계속해서 훼손하고 있는 시급한 평화 및 안보 과제를 분석한다. 최근 은크웬(Nkwen) 시장에서 발생한 즉석 폭발 장치(IED) 공격, 밤티(Bamti)에서의 대규모 납치 사건, 사브가(Sabga)와 같은 전략적 교통 요충지를 따라 지속되는 불안정한 상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무장 폭력은 여전히 만연해 있다. 분쟁 그 자체를 넘어, 범죄 조직들은 갈취, 불법 검문소, 그리고 공공 안전과 경제 활동을 더욱 약화시키는 기타 형태의 폭력을 통해 만연



한 불안정한 상황을 점점 더 악용하고 있다. 매주 시행되는 봉쇄 조치와 이동 제한은 생계, 교육, 의료 서비스 제공, 사회적 결속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 동시에, 동가-만퉁(Donga-Mantung) 및 멘쭈무(Menchum) 구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공동체 간 긴장, 특히 농민과 목축민 간의 갈등은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경쟁을 심화시켰다. 인구 이동은 여전히 이 분쟁의 가장 눈에 띄는 결과 중 하나로, 북서부 및 남서부 지역 전역에서 50만 명 이상이 피난민이 된 반면, 아코(Ako) 소구역과 멘쭈 계곡(Menchum Valley)에서 다시 발생한 인구 이동은 안보 상황이 여전히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

둘째, 이 발표는 여성과 소녀들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리더십을 인정하는 한편, 분쟁이 초래한 심각한 성별 기반 결과를 강조한다. 국내 실향민(IDP) 수용소 보고에 따르면, 단 1년 만에 성별 기반 폭력 사례가 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이동 제한으로 인해 필수 산모 의료 서비스 이용이 줄어들었으며, 이로 인해 산전 관리 이용률이 34% 감소하고 전문 인력이 있는 분만 건수가 70% 감소했다.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은 사춘기 소녀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 이들이 학교 중퇴, 조혼, 경제적 취약성에 노출될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 한편, 북서부, 남서부, 극북부 지역에서 250만 명 이상이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가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다. 학교의 69%가 안전한 식수를 이용할 수 없고, 63%가 적절한 위생 시설 없이 운영되는 등 물·위생·위생 인프라의 악화는 교육, 공중 보건, 아동 보호가 직면한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인도적 고통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모든 평화 구축 이니셔티브의 중심에 여성의 보호, 참여, 리더십을 두어야 한다는 절박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셋째, 본 발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계속해서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들을 탐구하는 동시에, 의미 있는 변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무장 세력의 분열,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서의 봉쇄 및 강압적 조치 지속, 대화 결과의 미흡한 이행에 따른 대중의 신뢰 하락 등으로 인해 진전이 제한되어 왔다. 인도적 지원 접근은 여전히 심각하게 제한되어 있어 수백만 명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26년에는 약 29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카메룬은 여전히 중앙아프리카에서 자금 지원이 가장 부족하고 간과되고 있는 인도적 위기 지역 중 하나이다. 이로 인해 불안정한 정세가 필수 서비스를 마비시키고, 악화된 서비스 제공이 빈곤과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커져가는 절망감이 새로운 강제 이주와 불안정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조성되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인도적 필요와 분쟁의 구조적 원인을 모두 해결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UNFPA, OCHA 및 현장 인도주의 파트너들이 2025~2026년에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본 발표는 카메룬 북서부 지역의 지속 가능한 평화가 안보 대응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민간인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안전하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며, 필수 공공 서비스를 복원하고, 인도적 지원 접근성을 확대하며, 지역사회와 기관 간의 신뢰를 재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단순히 분쟁의 피해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회복에 있어 그들의 목소리와 리더십이 필수적인 지역사회 지도자, 중재자, 돌봄 제공자, 기업가, 의사결정자로서 평화 구축에 없어서는 안 될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북서부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고난을 견뎌냈지만, 그들의 회복력은 여전히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보호, 포용적 거버넌스, 사회 정의, 지역사회 주도의 평화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음으로써, 카메룬은 10년에 걸친 분쟁을 안정, 화해, 공동 번영이 실현되는 미래로 전환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폭력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지역사회를 위한 인간의 존엄성, 기회, 그리고 희망의 회복이다.



패널 토론 1

전쟁의 부재를 넘어: 카메룬의 평화 과제가 여성 역량 강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미치는 영향 고찰



우멘조 바니아 안둠베니

회장, 젠더 및 장애 문제 증진 협회(APGDI) 카메룬 | 카메룬

우멘조 바니아 안둠베니는 카메룬의 성평등 옹호자, 평화 구축가, 포용적 교육 전문가, 작가 및 연구원으로, 성평등, 장애인 포용, 포용적 교육을 증진해 온 1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카메룬 성평등 및 장애 문제 증진 협회의 창립자이자 회장으로서, 평화 구축과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해 IWP와 MOU를 체결했다. 또한 그는 카메룬 포용적 특수교육 교사 연수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CISETTEP)의 국가 부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으며, 카메룬 야운데에 위치한 SENTTI-IBES의 교장으로도 재직 중이다. 연구, 교육, 옹호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통해 그는 여성, 소녀, 그리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위한 포용적 정책과 지속 가능한 평화를 옹호하고 있다. 현재 야운데 제1대학교에서 자폐증 분야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카메룬 부에아 대학교에서 특수교육 석사 학위와 여성-젠더 연구, 사회학 및 인류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다.

연락처:

vaniamen@gmail.com

초록

평화는 단순히 분쟁이나 전쟁의 부재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평화롭게 지내며 인권과 자유를 누리고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유엔 관계자(2014)가 언급했듯이,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존엄성과 복지를 의미한다.

분쟁과 열악한 근로 조건,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가 만연한 카메룬과 아프리카에서는 평화를 누리기 매우 어렵다. 여성의 생식적 역할과 관련된 관습과 전통은 여성들의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평화는 교육, 건강, 고용, 역량 강화, 빈곤 등 여성 삶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미친다. 분쟁과 같은 위기 상황은 또한 여성들의 취약성을 가중시킨다. 예를 들어, 2016년 카메룬에서 시작된 영어권 지역 위기로 인해 많은 가족이 안전을 위해 고향을 떠나 다른 도시로 피난하여 국내 실향민이 되었다. 일부는 소지품과 생계 수단을 잃었고, 아이들은 교육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 다른 도시에서 국내 실향민으로 생활하거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취약성은 여성과 소녀들의 고난과 빈곤을 가중시킨다. 교육은 결혼을 늦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소녀들은 결국 조기 임신과 조기 결혼에 이르게 된다. 게다가 가족의 주된 생계부양자였던 남편들이 위기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잃었을 수 있어, 여성들의 가족에 대한 책임은 더욱 커졌다. 이는 여성과 아이들에게 심리적 트라우마를 안겨준다. 게다가, 기업이 정신을 가진 일부 여성들은 위기가 범죄자들에게 타인의 재산을 훔치고 파괴할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모든 투자 자금을 잃기도 했다. 위기 상황은 사업하기에도 좋은 환경이 아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는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실직 상태에 놓이게 됨을 보여주며, 그 결과 특히 여성들 사이에서 빈곤이 심화된다. 여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돌볼 수 없게 된다. 이는 또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하며, 스트레스는 우리의 건강에 해로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매우 흔해져 심리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게다가 위기 상황에서는 임산부를 돌볼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성의 생식 건강도 영향을 받는다. 빈곤은 또한 여성들의 의료 시설 이용을 제한한다. 일부 여성들은 피임 방법에 대해 무지하다. 게다가 문화적 기대 때문에 여성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특정 직업을 갖지 못하거나, 특정 분야에 진출하지 못하기도 하다. 일부 전통은 여성이 토지와 같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을 막기도 하는데, 이는 여성은 재산일 뿐이며 재산이 어떻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겠느냐는 논리에 근거한다. 여성은 부역이 여성의 자리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리더십 직책에 진출할 기회를 간과당하곤 한다. 여성의 기회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이러한 구조적 장벽이 마련되면, 이는 여성의 평온한 삶을 저해하고 갈등을 야기하며 여성들의 빈곤을 가중시킨다. 대개 문화와 전통으로 인해 대다수의 여성은 자신의 열정보다는 생식적 역할에 부합하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은 일이다. 여성에게 권한이 부여되지 않을 때, ‘여성의 교육은 국가의 교육이다’라는 말처럼 가정,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고통을 겪게 된다. 이는 교육받고 권한을 부여받은 여성이 자녀와 가족 전체를 위해 적절한 건강, 적절한 교육, 그리고 양질의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이 사회의 기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가정이 질서 있고 평화로워지면 사회도 평화로워져 궁극적으로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다. 여성의 의견은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접적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므로, 여성들을 협상 테이블에 참여시키고 그들의 견해를 고려해야 한다. 생계의 주요 원천인 농업 분야에서 여성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여성들은 갈등, 소외, 차별 또는 어떠한 형태의 착취가 발생할 때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주체이다. 이는 어머니, 아내로서의 생식적 역할과 지역사회 내 돌봄 역할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 위기가 발생하면 물을 길어오는 것이 여성과 소녀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 산림 벌채로 나무가 부족해질 때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지역사회에서 장작을 구하는 일은 여성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갈등이나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부담이 여성과 소녀들에게 더 크게 돌아오며, 이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과 성별에 따라 여성에게 부여된 재생산적 역할로 인해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패널 토론 1

바멘다 지역의 가장 시급한 평화 과제인 십대 약물 남용 및 원치 않는 임신: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해결이 어려운 이유



켁 줄리엣 치

프로젝트 매니저, 카메룬 장로교 평화 사무소 | 카메룬

켁 줄리엣 치는 공법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인권법, 국제형법, 국제인도법을 전공했다. 그는 노련한 평화 옹호자로서 카메룬 장로교회의 프로젝트 매니저로 활동하며 개발 및 긴급 대응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분쟁 전환, 리더십, 중재 분야의 공인 강사로서, 그는 권리 기반이며 포용적이고 참여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분쟁 해결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의 회복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증진하는 데 폭넓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연락처:

kengjuliet@gmail.com

초록

마약 남용과 원치 않는 십대 임신은 바멘다에서 주요한 사회적·평화적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십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특히 여성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약물 남용은 범죄, 폭력, 학교 중퇴,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반면, 원치 않는 임신은 종종 학업 중단, 빈곤, 낙인, 그리고 안전하지 않은 낙태로 이어진다. 이 발표는 이 두 가지 문제와 그 원인,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해결이 어려운 이유를 살펴본다. 또한 정부, 가정, 학교, 종교 기관, 지역사회 단체를 위한 실질적인 권고 사항을 제안한다.



패널 토론 2

문화와 예술을 통한 여성 주도의 평화 문화 조성



사넴 아리칸

튀르키예 공화국 문화관광부 행정서비스국장 | 튀르키예

사넴 아리칸은 IWPG 홍보대사로, 현재 튀르키예 공화국 문화관광부의 행정서비스국 및 저작권총국 국장을 맡고 있다.

연락처:

sanemarikan@gmail.com

초록

이 발표는 여성들이 문화, 예술, 문화 외교를 통해 평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어떻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튀르키예의 경험과 국제 문화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상호 이해, 존중,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는 데 있어 예술적 표현과 문화 교류의 힘을 강조한다. 이 발표는 지속 가능한 평화가 정치적·제도적 노력뿐만 아니라, 여성이 대화, 포용, 공동체 구축의 핵심 주체로 활동하는 문화적 참여를 통해서도 구축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통 예술, 문화 간 협력, 창의적 교육을 통해 여성들은 더욱 평화롭고 서로 연결된 세상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패널 토론 2

생존을 넘어: 분쟁 지역 여성에게 안보뿐만 아니라 심리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 - 케냐 바링고 카운티 사례



레지나 무티루 므웬드와

평화 및 젠더 전문가, 국가결속통합위원회(NCIC) | 케냐

레지나 무티루 므웬드와는 로타리 평화 펠로우이자 1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노련한 평화 구축 실무자이다. 그의 전문 분야와 관심사는 여성, 청년, 평화 및 안보에 중점을 둔 지역사회 주도형 평화 구축이며, 여기에는 젠더 및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에 관한 연구 수행도 포함된다. 레지나는 케냐와 에티오피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케냐의 국가결속통합위원회(NCIC)에서 근무 중이다.

연락처:

reggymuli@yahoo.com

초록

바링고 카운티의 분쟁은 대개 사망자 수, 도난당한 가축, 공격을 받은 마을 등으로 측정되는데, 이러한 관점은 눈에 보이는 폭력만을 포착할 뿐 생존자들, 특히 여성들이 안고 있는 눈에 띄지 않는 상처는 간과하고 있다. 무장 해제 노력으로 상대적인 평온이 찾아오고 피난민 가족들이 귀환을 고려하기 시작했지만, 회복 과정의 한 측면인 정신 건강 문제는 여전히 대부분 방치된 채 남아 있다. 이 발표는 공격을 피해 도망치던 중 출산한 생존자, 비밀리에 피난민 가족을 숨겨준 생존자, 삶을 재건했다가 홍수로 인해 다시 피난민이 된 생존자 등 바링고 지역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안보와 무장 해제가 위기의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음을 주장한다. 즉, 이들은 질서는 회복시키지만 웰빙은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발표는 공식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비공식 지역 사회 네트워크, 특히 여성 단체들이 어떻게 나서서 역할을 수행해 왔는지, 그리고 처리되지 않은 트라우마가 어떻게 사회적 결속, 지역 사회 간의 화해, 그리고 여성들의 재건 능력을 계속해서 약화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이 발표는 정신 건강 및 심리사회적 지원(MHPSS)이 분쟁 대응 과정에서 보안, 식량, 주거 문제가 해결된 후에야 다루어지는 부차적인 고려 사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링고와 같은 난민 및 무장 해제 상황에서는, 트라우마가 드러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한 이웃 간의 화해와 지속적인 결속이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에, 정신 건강 지원은 평화 그 자체의 토대가 된다.



패널 토론 2

그녀의 목소리, 우리의 평화: 지역 행동에서 정책 개혁까지의 여성 리더십



라벨로손 치우르손 로바하니트라 이다

전국 위원장, 사회정의연합(CO.JUSTI.S) 마다가스카르 | 마다가스카르

이다 라벨로손은 사회정의연합(CO.JUSTI.S) 마다가스카르의 전국 위원장으로, 여성과 소녀의 권리에 중점을 두고 사회정의, 인권, 포용 및 참여형 거버넌스를 증진하고 있다. 그는 최근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 마다가스카르 (African Women Leaders Network Madagascar)의 평화 및 안보 부문 책임자로 선임되었다.

그는 여성 리더십, 성별 기반 폭력(GBV) 예방,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성·생식 건강 및 권리(SRHR), HIV/AIDS 거버넌스 및 정책 옹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원, 정부 부처, 여성 시장, 시민사회 및 지역 사회 주체들과 협력하여 현장의 현실을 제도 개혁과 연계하고, 평화 구축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여성의 효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연락처:

cojustismdg@gmail.com

초록

여성이 의사결정 공간에서 배제된 채로는 평화를 구축할 수 없다. 이 발표는 마다가스카르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 성폭력, 기후 스트레스, 사회적 긴장 등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약속과 실제 실천 간의 격차를 조명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지역 사회 주체들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여성 주도 대화, 지역 평화 네트워크, 풀뿌리 여성 평화 구축자들을 위한 소규모 유연한 지원금, 그리고 보호에서 리더십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적 조치를 제안한다.



패널 토론 2

교육을 통한 통합: 비즈니스 및 기업가 정신 발전을 위한 여성과 청년의 역량 강화



야나 메룬코바

설립자 겸 CEO, 유어찬스 o.p.s. | 체코

야나 메룬코바는 체코의 공익 단체인 유어찬스 o.p.s.의 대표로, 2014년부터 금융 교육, 기업가 정신, 사회적 통합 분야의 활동을 주도해 왔다. 2022년부터는 우크라이나 가족을 포함한 신규 이민자의 통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인 'Vítej v Česku'를 기획하고 이끌고 있다. 그는 체코 교육부 및 재무부 산하 전문가 실무 그룹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 금융 문해력 기준 수립에 기여했다. 2025년에는 금융 및 경제 문해력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체코 국립은행 총재상을 수상했다. 국제적인 기조 연설가로서, 그녀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현장 실천과 공공 정책을 연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연락처:

jana@yourchance.cz

초록

교육, 기업가 정신, 기회 균등은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가장 실용적인 도구들 중 하나이다. 이 발표는 체코의 공익단체 유어찬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세 가지 요소가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본다. 교실 기반의 금융문해교육과 멘토링부터, EBRD의 지원을 받는 스타 앤 그로우(Star&Grow) 프로젝트의 일환인 피치 회의(Pitch Summit)와 같은 국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또한 실무 역량 강화, 영향력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자신의 활동을 알릴 수 있는 공적 플랫폼 제공 등 여성들에게 나타난 구체적인 성과를 조명한다. 이 발표는 여성 역량강화가 지역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효과가 입증된 모델이 다양한 지역으로 확산·재현되고 공공정책에 반영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지역 현장의 실천과 정책 대화를 연결함으로써, 이 발표는 개인의 역량강화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패널 토론 2

지역사회, 문화, 소속감을 통한 평화 구축: 몰도바와 체코의 경험과 교훈



빅토리아 도누

설립자 겸 회장, 몰도베니.cz | 몰도바

빅토리아 도누는 문화, 지역사회 참여 및 시민 활동을 통해 체코에 거주하는 몰도바 디아스포라를 연결하는 비영리 단체 몰도베니.cz의 설립자이자 회장이다. 또한 그는 민속 예술 단체 코드리안카(Kodrianka)의 공동 설립자이자, 예술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하는 국제 단체 싱 포 호프(Sing for Hope)의 유럽 프로젝트 리더이다. 몰도바 출신으로 프라하에 거주하는 빅토리아는 음악가이자 연사, 지역 사회 지도자로서 문화 간 대화, 소속감, 풀뿌리 평화 구축을 장려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문화, 창의성, 지역 사회 참여가 어떻게 다양한 사회 전반에 걸쳐 회복탄력성, 신뢰,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락처:

victoria.donu@gmail.com

초록

평화는 종종 외교, 제도, 분쟁 해결과 연관되어 생각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평화는 훨씬 더 이른 시점, 즉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존중받으며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는 지역사회 내에서 시작된다.

이 발표에서 빅토리아 도누는 체코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풀뿌리 활동을 통해 문화와 지역사회 간 가교를 구축한 경험을 공유한다. 몰도베니.cz의 창립자 겸 회장, 코드리안카 민속 앙상블(Kodrianka Folk Ensemble)의 공동 창립자, 그리고 싱 포 호프(Sing for Hope)의 유럽 프로젝트 리더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문화, 지역사회 참여, 창의적 표현이 소속감, 회복탄력성, 사회적 결속력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디아스포라 공동체 구축과 문화 외교부터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을 지원하는 예술 기반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빅토리아는 지역 차원의 활동이 어떻게 의미 있고 지속적인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그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공동체 구축자, 문화 대사, 평화 실천가로서 수행하는 독특한 역할을 부각시키며, 평화가 단순히 최고 수준에서 협상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 포용, 그리고 공유된 인간성을 통해 매일 가꿔지는 것임을 증명한다.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포럼

미주 지역

7 월 20 일(월) 16:00 GMT

패널 토론 1

피스 우도카 애니라

설립자, 글로벌 임팩트 엠파워먼트 허브 | 캐나다

침묵에서 영향력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평화를 재정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맛차할라 토레스 피멘텔

심리학자, 콜렉티바 릴라 | 멕시코

평화 문화 구축의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정신 건강

카렌 엘리자베스 레온 로메로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 재학생 | 멕시코

고통과 부재로부터: 멕시코의 관점

레이날다 델 카르멘 클리프 비달

작가 겸 변호사 | 멕시코

빛, 그림자와 통합하는 평화

패널 토론 2

아나 에리카 산타나 곤살레스

연방 하원의원, 멕시코 하원 | 멕시코

법적 평등에서 여성의 경제적 주권으로

벨키스 플로렌티나 이즈키에르도 토레스

판사, 평화특별재판소 | 콜롬비아

영토적 평화와 과도기적 정의: 민족, 젠더, 여성, 가족 및 세대적 접근

파울라 자켈린 온티베로스 바스케스

교수,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 멕시코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 여성의 관점, 해결책 및 정책 권고

신시아 데 카르발류 브룸,

매니저, 디스케 데눈시아 물레르, 모브히우 연구소 | 브라질

여성의 안전을 통한 평화 구축: 브라질의 '디스케 데눈시아 물레르' 사례

이본 아드리아나 가이탄 베르트루이

교수, 후아레스 타바스코 자치 대학교 | 멕시코

평화 문화를 위한 포괄적인 대학 교육: IWPG-UJAT 모델

레티시아 로드리게스 세라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마마야테크 | 볼리비아

지속가능한 평화 설계: 라틴 아메리카의 혁신, 포용,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STEM 분야 여성 역량 강화

안젤리카 세라토스 수비리아

설립자, 헤라 | 멕시코

월경권은 인권이다



패널 토론 1

침묵에서 영향력으로: 여성의 목소리가 평화를 재정의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피스 우도카 애니라

설립자, 글로벌 임팩트 엠파워먼트 허브 | 캐나다

피스 우도카 애니라는 역량 강화, 협력, 그리고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옹호자이다. 글로벌 임팩트 엠파워먼트 허브(Global Impact Empowerment Hub), 우도페니 네트워크 리미티드(Udopeny Network Limited), 걸스 타임 아웃(Girls Time Out), 그리고 북클럽의 창립자로서, 그는 여성, 전문가, 그리고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는 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브램턴 사우스 로타리 클럽(Rotary Club of Brampton South) 회장을 역임하며 봉사 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했다. 피스는 교육, 코칭, 멘토링,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개인이 개인적·직업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타인을 격려하고 그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그의 헌신 덕분에 그는 “민족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의 사명은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연락처:

udopeny@gmail.com

초록

여성들의 목소리는 평화에 대한 대화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관, 국가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 발표는 여성들이 대화를 주도하고, 포용성을 증진하며, 갈등을 해결하고,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냄으로써 어떻게 침묵에서 영향력 있는 존재로 거듭나는지를 탐구한다.

이 발표는 여성 리더십이 성평등을 증진하고,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창출하는 데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강조하는 동시에, 더 공정하고 포용적인 미래를 향한 집단적 행동을 고무한다.



패널 토론 1

평화 문화 구축의 결정적 요인으로서의 정신 건강



밋차할라 토레스 피멘텔

심리학자, 콜렉티바 릴라 | 멕시코

밋차할라 토레스 피멘텔은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을 졸업한 심리학자로, 임상 및 법정·범의심리학을 전공했으며, 국립범죄과학연구소에서 법의심리병리학 및 사법 시스템 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인권, 젠더, 정신 건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폭력 피해 여성들에게 심리적 지원을 제공한 경험은 물론, 폭력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주도한 경험도 있다. 또한 취약 계층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시민 사회 단체 및 학술 기관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IWPG와 함께 일하고 있다.

연락처:

psic.mitzha@gmail.com

초록

여성의 정신건강은 평화 문화 구축에 필수적이다. 여성의 처지는 역사적으로 폭력과 불평등에 의해 형성되어 왔으며, 사람들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성과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존엄성과 유대감을 증진하고, 갈등을 비폭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각 지역의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정신건강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정의와 회복탄력성, 공동체의 안녕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지원은 보다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패널 토론 1

고통과 부재로부터: 멕시코의 관점



카렌 엘리자베스 레온 로메로

학생,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 멕시코

카렌 엘리자베스 레온 로메로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외교, 인권, 문화 간 교류에 대한 열정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여행하고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서로 다른 국가, 언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긴다. IWPG의 대학 평화 대표로서 카렌은 젊은 여성들이 활동에 참여하고 글로벌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자 한다. 그는 타인에게 영감을 주는 데 진심으로 헌신하며, 집단적 공감에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락처:

leon.romero.karen09@gmail.com

초록

멕시코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구조적 폭력과 불안정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종 문제와 관련된 이 위기는 학교에 가거나 직장에 출근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일상조차 불확실성의 무게를 지게 만드는, 지속적인 경계 상태에 놓인 환경을 조성했다. 멕시코는 활기찬 문화와 단결력을 갖춘 국가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깊은 국가적 트라우마의 시기를 겪고 있다. 교사, 학생, 그리고 실종된 자녀를 찾는 어머니들이 주도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시위는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이는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고 보호받기를 요구하는 사회의 절규이다.

이러한 폭력은 여성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 가족의 심장부를 정통으로 강타한다. 이는 딸이 학교에 가기 전 축복과 포옹을 건넨 어머니가, 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 그 침묵이 절대적인 고요로 변해버리는 순간 겪는 날것 그대로의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이다. 이 어머니들은 종종 거리에서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며, 마음이 찢어지는 와중에도 관료주의적 방치와 수색 영장을 기다려야 하는 냉혹한 현실을 헤쳐 나가야만 한다. 우리는 너무 많은 가족이 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한 채, 혹은 더 끔찍하게도 시신조차 찾지 못한 채 끝없는 고통 속에 방치되는 악몽을 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문제가 아니라,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균열이다.

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면책의 역사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복잡하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은 집단적 공감을 실질적인 공공 정책으로 전환할 효과적인 통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우리는 대규모 행사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단결을 넘어, 영구적이고 조직적인 연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한다. 젊은 여성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이 간극을 메우고, 우리의 목소리가 미래 세대가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가며, 모든 시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안전을 회복하는 것이다.



패널 토론 1

빛, 그림자와 통합하는 평화



레이날다 델 카르멘 클리프 비달

작가 겸 변호사 | 멕시코

레이날다 델 카르멘 클리프 비달은 1972년 1월 8일 멕시코 타바스코주 빌라에르모사에서 태어났다. 변호사이자 심리학자인 그는 현재 타바스코 후아레스 자치대학교(UJAT)에서 심리사회적 개입 분야 이학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작가이자 시인인 그녀는 『*Dijeron no*』의 저자이며, 다양한 주(州), 국가, 국제 시선집에 작품을 기고해 왔습니다. 또한 『*Mujer abraza la vida*』 페이지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2025년부터는 IWPG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연락처:

rcliff131@gmail.com

초록

평화는 우리가 소중히 가꾸고, 그것을 꺼뜨리려 위협하는 외부 세계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내면의 불꽃이다. 그 빛은 따뜻하며, 다정함과 달콤함, 그리고 위안을 전해준다. 원시 시대의 가정에서 불은 우리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여성들이 그 주위에 모여 삶과 경험, 꿈을 나누던 만남의 장소였다. 불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법을 배우며, 그 힘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우리는 불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어느 순간, 우리는 불의 화해적인 본질을 잊고, 상상의 경계를 세우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불빛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차이점만을 드러내게 되었다. 우리는 문화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교적 기준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더 이상 ‘하얀’ 종족이 아니게 되었고, 우리를 구분 짓는 색과 형태를 띠게 되었다. 사랑은 편의에 따라 사용되는 연료가 되었고, 자유는 꾸며진 외피가 되었으며, 우리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피부 너머에는 어떤 힘도 지배권도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타인의 불꽃을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시선을 되돌려 친밀함, 화해,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단순한 공감, 존중, 타인에 대한 수용을 넘어서는 무언가—바로 우리가 지니고 있는 빛과 우리가 부정하는 어둠을 인식하고 통합하는 것과 관련된 무언가이다. 편견과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차이를 넘어, 달에서 바라보면 오직 불화, 분열, 비판, 비난만을 뿌리는 종교적 신념을 초월하는 것—전쟁에서 희생되는 이들을 대가로 한 이성의 승리를 조장하는 사상들 말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우리를 제한하고 분열시키며, 타인의 불꽃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고 인식하는 것을 방해하고, 혼란을 용납할 수 없는 안락함을 해치고, 의문을 제기하며, 위협하는 그 다른 빛을 꺼버리려는 타격을 정당화하는 기만에 길을 열어준다.

이 발표를 통해 나의 경험을 하나 나누고 싶다. 몇 년 전, 나는 각기 다르고 개성 넘치며, 먼 지역에서 온 다양한 배경과 업적을 가진 여성들의 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밤이 되자 그들은 같은 모닥불에서 가



저온 불씨를 우리에게 나눠주었지만, 야외의 산들바람이 많은 촛불을 꺼버렸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던져졌다. “당신에게 주어진 빛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그곳, 별빛 아래에서 누군가가 입을 열어 말했다. “연사는 그 빛을 제 존재 속에 녹여냈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그들의 빛을 계속 밝힐 수 있도록 도왔으며, 우리는 함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패널 토론 2

법적 평등에서 여성의 경제적 주권으로



아나 에리카 산타나 곤살레스

연방 하원의원, 멕시코 하원 | 멕시코

아나 에리카 산타나 곤살레스는 제66대 멕시코 의회에서 녹색생태당(PVEM) 소속 연방 하원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문화영화 위원회 및 거버넌스·인구 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있으며, 헌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및 기업 지배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변호사이자 법학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또한 LAIHA의 멕시코 대사이자 사회 운동가이며, 슬로우 푸드 바하칼리포르니아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그는 『인권적 관점에서 본 피해자들』(2018)을 공동 집필했으며, 2025년 CONCANACO 국가상인 “유리 천장을 깬 여성” 부문을 수상했고, 바르셀로나 대학교 CannabisHub의 석사 과정에서 컴플라이언스 및 비교법 강의를 하고 있다.

연락처:

ana.santana@diputados.gob.mx

초록

여성의 경제적 주권은 21세기 지속 가능한 발전, 민주주의의 회복력, 평화 구축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다. 법적 평등 달성을 위해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여성은 여전히 부를 창출하고, 생산적 자산을 축적하며, 공식 경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장벽은 성평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까지 저해한다.

본 발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가 단순히 사회적 정의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번영과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제적 실증 자료를 바탕으로, 여성 기업가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융 배제, 비공식적 사업 활동, 생산적 신용에 대한 접근성 제한, 그리고 금융 문해력, 기업 지배구조, 규정 준수 체계의 부재와 같은 지속적인 과제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발표는 정부, 다자간 기구, 대학, 개발금융기관, 민간 부문 간의 글로벌 파트너십인 ‘2035 여성 경제 주권 이니셔티브(Women’s Economic Sovereignty Initiative 2035)’를 제안한다. 이 이니셔티브는 여아를 위한 보편적 금융 교육, 여성 주도 기업의 비공식성 감소,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기업의 지배구조 및 규정 준수 강화, 무급 돌봄 노동을 전략적 경제 인프라로 인정하는 것 등 다섯 가지 측정 가능한 목표를 기반으로 한다.

결국 본 발표는 여성의 경제적 주권 증진이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적 체도를 강화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며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는 글로벌 개발 의제라고 주장한다.



패널 토론 2

영토적 평화와 과도기적 정의: 민족, 젠더, 여성, 가족 및 세대적 접근



벨키스 플로렌티나 이스키에르도 토레스

판사, 평화특별재판소 | 콜롬비아

벨키스 플로렌티나 이스키에르도 토레스는 콜롬비아 시에라 네바다 데 고나원두아 지역의 이쿠/원투크와족 출신 원주민 여성이자 지도자이다. 그는 현재 평화특별재판소(JEP) 산하 '진실 인정, 책임 규명 및 사실·행위 판정 재판부'의 판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콜롬비아 국립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으며, 거버넌스와 공공 정책을 중점적으로 연구한 행정학 석사 학위를 보유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소수 민족이 겪은 집단적, 개인적, 영토적 형태의 폭력뿐만 아니라, 영토와 여성, 아동에게 가해진 차별적이고 불균형적인 피해를 드러내는 데 기여해 왔다.

연락처:

belkis.izquierdo@jep.gov.co

초록

본 발표는 JEP 제02호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성의 참여가 과도기적 정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석한다. 또한 사법 조사에서 젠더, 민족·인종, 교차성 접근법의 적용을 검토하고, 개인적·집단적·영토적 형태의 폭력과 피해를 조사하고 인정하는 동시에 보살핌과 모성애를 통해 평화를 엮어가는 데 기여하는 회복적 정의에 대한 이러한 접근법들의 기여를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장 조치, 보호 방안 및 효과적인 자원을 제안한다.



패널 토론 2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지역의 목소리: 여성의 관점, 해결책 및 정책 권고



파올라 자켈린 온티베로스 바스케스

교수,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 | 멕시코

파올라 자켈린 온티베로스 바스케스 박사는 멕시코의 법학자, 연구원, 민간 중재인, 평화 구축가이다. 그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법학 석사(LL.M.) 학위를 취득했으며, 분쟁 해결 및 중재 분야의 대학원 과정을 수료했다. 그는 멕시코 국가 연구자 시스템의 회원이며, 멕시코시티 공인 민간 중재인이자 베를린 MIKK 소속 국제 중재인이다.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의 전임 교수이자 저술가, 안메콘(ANMECON)의 창립 이사로서, 그의 연구는 중재, 대체 분쟁 해결, 디지털 정의, 평화 문화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락처:

paolaontiveros@hotmail.com

초록

본 발표는 중재, 평화 교육, 갈등 관리, 변혁적 리더십을 통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 여성의 필수적인 역할을 탐구한다. 민간 중재인 및 평화 구축가의 관점에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부재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대화, 협력,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통해 개인, 공동체, 기관이 차이를 건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발표는 중재, 협상, 감성 지능, 인권, 회복적 실천, 문화 간 역량, 윤리적 리더십에 대한 학제간 교육을 통해 여성 중재자들의 전문적 훈련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학교, 대학, 공공기관, 직장, 지역사회에 평화 교육과 갈등 관리 기술을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중재, 조정, 협상, 회복적 실천을 포함한 대체 분쟁 해결 기제들이 정의 실현과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제시된다. 이 발표는 여성 중재자를 위한 전문 네트워크 및 교육 과정 개발, 평화 문화 교육을 제도화, 대체 분쟁 해결 기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평화 관련 의사결정에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 우선순위를 제안한다. 궁극적으로, 여성의 리더십은 갈등, 제도,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패널 토론 2

여성의 안전을 통한 평화 구축: 브라질의 '디스케 데누시아 물레르' 사례



신시아 데 카르발류 브룸

매니저, 디스케 데누시아 물레르, 모브리우 연구소 | 브라질

신시아 데 카르발류 브룸은 브라질 인스티투토 모브리오(Instituto MovRio)의 '디스케 데누시아 물레르(Disque Denúncia Mulher)' 담당 매니저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가이자 여성 인권 옹호자인 그녀는 익명 신고 채널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시민 사회와 공공 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시아는 또한 '도시에 무헤르 2024(Dossiê Mulher 2024)'에 기여하여,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한 증거 기반 공공 정책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녀는 커뮤니케이션이 사회적 변화, 평화 구축, 그리고 더 안전하고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연락처:

cinthiacbrum@gmail.com

초록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단순한 인권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이기도 하다. 본 발표는 '디스케 데누시아 물레르(Disque Denúncia Mulher)'가 익명 신고, 대중 인식 제고 캠페인, 기관 간 협력을 어떻게 결합하여 폭력을 예방하고, 보호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공공 정책을 뒷받침하는지 살펴본다. 또한 여성을 보호하는 것이 곧 아동을 보호하고, 지역사회를 강화하며, 더 평화롭고 회복력 있는 사회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패널 토론 2

평화 문화를 위한 포괄적 대학 교육: IWPG-UJAT 모델



이본 아드리아나 가이탄 베르트루이

교수, 후아레스 타바스코 자치 대학교 | 멕시코

약력 미수록

연락처:

ivonneagaytanb@gmail.com

초록

대학은 학생들을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킨다. UJAT에서 시행된 대학 모델과 IWPG가 추진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이 두 기관은 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협력함으로써 세계의 사회적 현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는 동시에 학내 공동체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며 서로를 보완한다. 이들은 함께 젊은이들이 폭력 없는 미래를 건설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은 교실의 경계를 넘어선다. 대학은 학생들에게 갈등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세상을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지구를 돌보고, 전체 공동체의 복지를 추구하는 세계 시민이 되도록 돕는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감과 뇌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끄는 ‘뉴로리더십’을 활용함으로써 더욱 강화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어, 보다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결합함으로써 교육 기관은 자신감 있고 책임감 있는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UJAT는 학생들이 대화에 참여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IWPG와 같은 글로벌 단체와 협력하여 평화 문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한다. 이러한 전인적 교육 접근 방식은 젊은이들이 긍정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학생들은 대화에 참여하는 법, 갈등을 중재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학생들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더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패널 토론 2

지속가능한 평화 설계: 라틴 아메리카의 혁신, 포용,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STEM 분야 여성 역량 강화



레티시아 로드리게스 세라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 마마야테크 | 볼리비아

레티시아 로드리게스 세라테는 볼리비아 출신의 산업공학자이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분석가이다. 그녀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개선을 전문으로 하며, 기술과 증거 기반 의사결정을 활용하여 복잡한 조직적 과제를 해결한다. 이전에는 우니발레 대학교(Universidad UNIVALLE) 산업공학 학회에서 연구 책임자로 재직하며 학생들의 연구 및 혁신 활동을 장려했다. STEM 분야 여성 리더십에 깊은 열정을 가진 그녀는 교육, 혁신, 그리고 부문 간 협력을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 그리고 지속적인 평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주창하고 있다.

연락처:

leticiasr2104@gmail.com

초록

지속 가능한 평화는 단순히 갈등의 부재 그 이상을 요구하며, 포용적 발전, 혁신, 그리고 기회에 대한 평등한 접근에 달려 있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여성들은 기후 변화,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중대한 지역적 과제를 해결할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STEM 분야에서 여전히 저조한 대표성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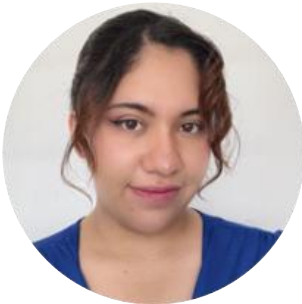
이번 발표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에서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확대함으로써 어떻게 혁신을 강화하고, 증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개선하며, 더 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볼리비아 출신 산업공학자의 관점을 바탕으로, 멘토링, 교육, 부문 간 협력, 여성 주도 혁신에 대한 투자 등 기회를 확대하면서 장기적인 사회적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확장 가능한 조치들을 강조한다.

이 발표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발전을 향한 전략적 경로로 STEM 분야의 여성 리더십을 자리매김하기 위해 정부, 대학, 산업계, 국제 기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권고 사항으로 마무리된다.



패널 토론 2

월경권은 인권이다



안젤리카 세라토스 주비리아

HERA 설립자 | 멕시코

안젤리카 주비리아는 국제경영학을 전공한 멕시코의 젊은 리더로, 사회적 영향력, 형평성, 인도주의적 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그녀는 멕시코에서 자궁내막증과 다낭성 난소 증후군(PCOS)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Women@Dior' 프로젝트인 HERA의 창시자로, 이 프로젝트는 혁신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인정받아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키드마(Kidma)의 창립 멤버이자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그녀는 특히 여성의 안전을 증진하는 'Cuidarnos en la Calle' 프로그램을 통해 취약 계층 청소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녀의 주요 관심 분야는 인권, 성평등, 지속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적 변화이다.

연락처:

zubiriangie@gmail.com

초록

수세기 동안 월경은 금기시되어 왔다. 이름이 붙지 않은 문제였기에 치료조차 받지 못했던 것이다. 자궁내막증이나 SOMP와 같은 질환은 여성 10명 중 1명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진단까지 8~10년이 걸린다. 유엔(2021)과 세계보건기구(WHO, 2024)가 생리 건강을 인권으로 인정한 이후, 진단 지연은 더 이상 임상적 실패가 아니라 인권 침해로 간주된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포럼에서 이 아이디어는 간단하다. 인구의 절반이 자신의 고통을 숨기도록 요구받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여성을 믿는 것 또한 평화의 실천이다.

2026 글로벌 여성 평화 포럼

남아시아/중동 지역

7 월 21 일(화) 06:00 GMT

패널 토론 1

가다 크라임 아타 전 장관, 레바논 난민부 레바논	주변부에서 협상 테이블로: 여성, 전쟁, 그리고 평화의 미래
마날 알-아사스 고문, 요르단 여성 국가 위원회 요르단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파우지아 쿠피 이사회 의장,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위한 연대 (WFA) 영국	협상 테이블의 한 자리를 넘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진정한 포용
라미아 알-에리아니 대표, 예멘평화학교기구 예멘	예멘의 국민 화해와 여성의 역할
후다 알카타위 평화 및 여성 인권 옹호가 이라크	파트너로서의 여성과 지속 가능한 평화 구축
헤바 하이다르 설립자, 글로벌 셰이퍼스 아덴 허브 예멘	회복력에서 평화로: 아덴 지역의 사회 변화를 이끄는 여성들

패널 토론 2

알-로미사 야쿵 인권국장, 법무인권부 예멘	국제 조약 및 협정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 지속가능한 평화를 촉진하는 로드맵 작성을 위한 지역 모델
비샤카 마산카르 주 대표, 바라티야 스트리 사크티 사무나타 인도	낙살(Naxal) 폭력에서 평화와 발전으로 향한 인도의 여정
아미라 알 자말 설립자 및 최고위원회 의장, 아워 스텝 협회 요르단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의 파트너로서 심리사회적 장애 여성의 역량 강화: 요르단 아워 스텝 협회의 경험
바를 카즈미 교육 멘토 파키스탄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마리아 하지파블루 은퇴 교수, 키프로스 대학교 키프로스	사회정치적 변화 촉진을 위한 다차원적 개입: 젠더 자문단(GAT) 사례



패널 토론 1

주변부에서 협상 테이블로: 여성, 전쟁, 그리고 평화의 미래



가다 크라임 아타

전 장관, 레바논 난민부 | 레바논

가다 크라임 아타는 레바논 전 난민부 장관으로, 현재 레바논 대학교에서 문학 및 문화간 연구를 전공하는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경력 전반에 걸쳐 공공 서비스, 교육, 성평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데 헌신해 왔다. 그는 이전에 레바논 여성위원회(NCLW) 산하 '정치 참여 여성 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여성의 정치 참여와 리더십을 증진하는 데 앞장섰다. 또한 그는 옹호 활동, 교육,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여성 리더십 지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헌신하는 단체인 WDG(Women Development Goals) 협회의 창립자이기도 하다.

연락처:

ghadaata@hotmail.com

초록

여성들은 분쟁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해 나가지만, 평화 협상 및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여성의 참여는 평화 협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대표성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레바논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양상을 반영하고 있는데, 여성들은 위기 대응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소수의 의석만을 차지하고 있다.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평등하고 보장된 참여가 필수적이다.



패널 토론 1

여성에 미치는 영향



마날 알-아사스

고문, 요르단 여성 국가 위원회 | 요르단

약력 미수록

연락처:

manalaleses@gmail.com

초록

여성이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공간이 주어질 때 비로소 평화의 미래가 시작된다. 여성의 목소리는 단순한 부가 요소가 아니라, 보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초석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험이 경청되어 정책과 이니셔티브로 반영될 때, 대화가 강화되고 권리가 보호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회가 확대된다. 여성이 평화 구축 노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하고 평등한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패널 토론 1

협상 테이블의 한 자리를 넘어: 형식적인 참여가 아닌 진정한 포용



파우지아 쿠피

이사회 의장, 아프가니스탄 여성을 위한 연대 (WFA) | 영국

약력 미수록

연락처:

koofi_2006@yahoo.com

초록

최근의 평화 협상에서는 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 전쟁 생존자, 소외된 공동체 구성원들이 여전히 배제되고 있다. 최근의 평화 과정을 살펴보면, 협상 테이블에 여성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부족하며, 전쟁의 여파를 직접 겪은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가 전무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고도 충격적으로 드러난다.

이 논의는 포용이 상징적이거나 형식적인 대표성을 넘어설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평화협정이 정당하고 지속가능하며, 결속력 있는 사회를 조성할 수 있으려면 여성과 분쟁의 영향을 받은 공동체가 평화협정 수립 과정에서 동등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전쟁보다는 어떤 평화라도 낫지만, 모든 평화 협정이 ‘긍정적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너무 자주, 협정은 단순히 무력 충돌을 종식시킬 뿐, 억압과 불의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한다. ‘부정적 평화’(폭력의 부재)와 ‘긍정적 평화’(정의, 권리, 존엄성의 존재) 사이의 이러한 구분은 특히 아프가니스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일각에서는 탈레반이 권력을 되찾은 이후 적극적인 전쟁이 대체로 중단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프가니스탄이 더 평화로워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평화는 단순히 총성이 멈춘 것으로만 측정될 수 없다. 평화란 정의, 자유, 평등, 그리고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거의 1,700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마치 노천 감옥과 다름없는 정책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화를 논할 수 있을까? 여성들은 교육, 취업, 사회 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점점 더 억압받고 있다. 단지 성별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2등



시민으로 취급받으며, 통제당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체계적인 억압이다.

교육은 언제나 이 투쟁의 핵심이었다. 권위주의 및 극단주의 세력은 교육받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통제 체제에 도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바로 그 때문에 교육이 종종 그들의 첫 번째 표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평화를 위해 싸우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투쟁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탈레반이 강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 연사는 탈레반 대표들과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그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슬람에 대한 그들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평등, 공존, 다원주의가 이슬람과 양립할 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미래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여성의 삶을 통제하려는 많은 이들이 이슬람 학문이나 자신들이 옹호한다고 주장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모든 전쟁은 참혹하지만, 여성의 권리와 존엄성을 겨냥한 탈레반의 전쟁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불의 중 하나다. 오늘날 우리는 국제 인권법과 국제 인도법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가장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 체제의 신뢰성에 대해 심오한 의문을 제기한다.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단순하지만 고통스러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진다: “왜 우리의 권리는 덜 중요하게 취급되는가? 왜 국제법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가?” 그들의 요구는 결코 과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인도적 지원이 여성들에게 직접 전달되기를 원하며, 국제사회가 스스로 수호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법과 원칙을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다.



패널 토론 1

예멘의 국가 화해와 여성의 역할



라미아 알-에리아니

대표, 예멘평화학교기구 | 예멘

라미아 알-에리아니는 예멘 평화 학교의 설립자이자 대표로, 정부에서 뛰어난 경력을 쌓은 후 현재는 해당 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이전에 모성 및 아동 고등위원회 사무총장(2014-2019)을 역임했으며, 기술교육 및 직업훈련부 차관으로서 여아 교육에 주력했다(2009-2014). 평화와 여성 리더십의 저명한 옹호자로서, 그는 예멘 여성 NGO 리더십 네트워크, 평화 구축을 위한 시민 연합, 아랍 지역 화해 및 관용 지역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지역 및 국제 네트워크의 창립 멤버이자 활동적인 구성원이다. 그의 활동은 여전히 교육, 평화 구축, 그리고 분쟁 해결에서 여성의 역할 증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락처:

ly_eryani@yahoo.com

초록

예멘의 장기화된 분쟁은 심각한 사회적 분열과 인도적 고통을 초래했으며, 국가적 결속력을 약화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적 화해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필수적이며,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는 그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이다. 본 발표는 포용적 절차, 회복적 정의, 민간인 보호를 강조하는 여성 중심의 화해 접근법을 개괄한다.

주요 방안으로는 혐오 발언 감소, 지역 및 정치적 대화 강화, 피해자 경험 기록, 그리고 과도기적 정의에 페미니스트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이 접근법은 사회적 유대 재건의 토대로서 평등한 정치적 참여, 경제적 역량 강화, 평화 교육, 심리사회적 지원을 강조한다.

여성 주도 화해 위원회와 지역사회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국제 행위자들과의 폭넓은 파트너십을 형성함으로써 예멘은 양극화를 완화하고, 평화 과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패널 토론 1

파트너로서의 여성과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



후다 알카타위

평화 및 여성 인권 옹호가 | 이라크

후다 알카타위는 인도주의 활동, 여성 보호, 평화 구축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이라크 출신의 평화 구축가이자 인권 운동가다. 그는 국제관계학 학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니세프(UNICEF), 루터교 세계연맹(LWF), 티어펀드(Tearfund) 및 기타 국제 기구들이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관리해 왔다. 그의 활동은 '여성, 평화, 안보'(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 성폭력 예방, 지역사회 대화, 그리고 이라크 전역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여성 리더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연락처:

hudarifed@gmail.com

초록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중동의 많은 지역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분열, 강제 이주, 성 불평등과 같은 지속적인 문제들이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다. 여성들은 종종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집단이지만, 동시에 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발표는 해당 지역의 가장 시급한 평화 과제, 이러한 과제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를 탐구한다. 또한 여성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참여를 확대하며, 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역 사회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접근 방식을 강조한다.

이 발표는 여성의 역량 강화가 단순히 평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다. 여성을 평화 구축의 적극적인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는 더 큰 신뢰와 회복력, 그리고 장기적인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패널 토론 1

회복탄력성에서 평화로: 아덴에서 지역사회 변화를 주도하는 여성들



헤바 하이다르

설립자, 글로벌 세이퍼스 아덴 허브 | 예멘

약력 미수록

연락처:

alfaheemheba@gmail.com

초록

헤바 하이다르는 교육을 통해 평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 아덴의 여성들은 수년간의 분쟁 속에서도 지역 사회의 사회적 유대를 지켜냈다. 분열이 아닌 통합을 향한 길로서, 본 발표는 청년과 여성들을 기업가정신, 공동체 리더십,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하나로 모아온 경험을 전달한다.



패널 토론 2

국제 조약 및 협정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개발: 지속가능한 평화를 촉진하는 로드맵 작성을 위한 지역 모델



알-로미사 아쿰

인권국장, 법무인권부 | 예멘

알-로미사 아쿰 박사는 국제인도법 박사 학위를 소지한 인권 및 정치 활동가로, 평화 구축, 청년 및 여성 역량 강화, 그리고 소외 계층(특히 장애인)을 위한 옹호 활동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장애인 권리 옹호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의 회장이자 해당 부처 인권국 국장을 역임하며, 인권 정책과 사회 정의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연락처:

roomyaqoob@gmail.com

초록

본 발표는 평화 구축 및 분쟁 지역 내 가장 취약한 집단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국제 조약, 협약, 유엔 결의에 대한 이행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먼저 국제 입법체제와 지역차원의 운영 현실 사이의 질차적 격차를 분석하고, 이러한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경로를 성공적으로 마련한 지역 내 실제 사례들을 제시한다. 또한 본 발표는 기존 조약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유연하고 확장 가능한 운영 메커니즘과 연계하기 위한 체계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이러한 모델의 제도화를 보장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국제적 약속을 구속력 있고 지속 가능한 실행 전략으로 전환한다.



패널 토론 2

낙살(Naxal) 폭력에서 평화와 발전으로 향한 인도의 여정



비샤카 마산카르

주 대표, 바라티야 스트리 샤크티 사무나타 | 인도

연락처:

vishakha.mashankar27@gmail.com

비샤카 사미르 마산카르는 인간 발달, 가족 자원 관리 및 영양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가족 자원 관리 분야를 전공으로 한 석사 학위도 보유하고 있다. 그는 사회적 영향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역량 강화에 평생을 헌신해 왔다. 그는 일회용 플라스틱 대신 친환경 대안을 장려하는 자신의 기업 '비슈왓 에코팩(Vishwat Ecopack)'을 통해 총리의 '플라스틱 금지' 이니셔티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피리츠클럽 스피리츠 스튜디오(Spiritual Spirits Studio)'의 설립자로서, 고대 인도의 쿠단(Kundan) 예술과 석공 기술을 보존하고 부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는 700편이 넘는 마라티어와 힌디어 시를 집필했으며, 그중 다수는 잡지와 책에 게재되었다. 뛰어난 연설가이자 공인 국제 소프트 스킬 트레이너로서, 그는 기업, 대학, 학교를 아우르는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영감을 주었으며, 약 300회의 세션을 진행했다. 또한 그는 가족 및 개인 상담사이자, 레이키와 크리스탈 힐링 분야의 마스터 힐러이기도 하다. 그의 사회 공헌 활동은 라슈트라 세비카 사미티(Rashtra Sevik Samiti), 딘다얌 연구소(Deendayal Research Institute), 우트카르시 발 바반(Utkarsh Bal Bhavan), 국제 청년 회의소(JCI), 바라티야 스트리 샤크티(Bharatiya Stree Shakti) 등 여러 단체에 걸쳐 있다.

그는 꾸준히 국가적 우수상을 수상해 왔다. 2012년에는 필 S. 퍼그슬리(Phil S. Pugsley)로부터 권위 있는 국제 타이틀인 JCI 후원자(Patron of JCI) 칭호를 수여받았다. 그녀의 수상 경력에는 바라티야 산스크리트 파리아드(안드라 프라데시)가 수여한 잔시 라니 푸라스카르(Jhansi Rani Puraskar), 다텔 가드카리(Nitin Gadkari)가 수여한 카디 하마라 만트라 장인상(Khadi Hamara Mantra Artisan Award), 그리고 2022년 여성 우수상(Women Excellence Award 2022) 등이 포함된다. 그는 소녀들이 심리적으로 강해지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멘트 비슈왓(Moment Vishwat)' 이니셔티브를 이끌고 있다. 2026년에는 바라티야 스트리 샤크티의 대표단 일원으로 뉴욕에서 열린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70)에 인도를 대표해 참석했다. 열정적인 여행가인 그녀는 25개국을 탐방했다. 자신의 가치관에 깊이 뿌리를 둔 그는 사회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매 순간을 목적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는다. 또한 1991년 람 자만부미(Ram Janmabhoomi) 운동에 참여했으며, 우타르프라데시주 나이니에서 7일간 수감되기도 했던 자랑스러운 카르세바크(Karsevak)이기도 하다. 그는 기업가, 작가, 연설가, 강사, 치유사, 그리고 헌신적인 사회 복지사로서, 목적 지향적인 삶의 본보기입니다.

초록

초록 미수록



패널 토론 2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의 파트너로서 심리사회적 장애 여성의 역량 강화: 요르단 아워 스텝 협회의 경험



아미라 알 자말

설립자 및 최고위원회 의장, 아워 스텝 협회 | 요르단

약력 미수록

연락처:

ourstep_2010@hotmail.com

초록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이 의사결정 및 평화 구축 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수 없다. 본 발표는 요르단의 ‘아워 스텝 협회’가 인권 기반 접근법, 지역사회 통합, 옹호 활동, 파트너십, 정책 영향력을 통해 여성들의 역량을 강화해 온 경험을 조명한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평화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교훈과 권고 사항을 제시한다.



패널 토론 2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바툴 카즈미

교육 멘토 | 파키스탄

연락처:

bkazmieducator@gmail.com

바툴 카즈미는 국제 교육, 교사 연수, 평화 구축, 지속가능발전교육(ESD)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을 갖춘 교육자이자 평화 강연가, 지속가능성 옹호자다. 그는 피어슨(Pearson) 마스터 트레이너이자 노련한 시험관으로서 국제 자격증 과정의 운영 및 평가에 기여해 왔다.

그는 IWPG 글로벌3국 플랫폼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평화 강연을 해왔으며, GGC 플랫폼의 회원으로서 파키스탄을 대표하는 글로벌 지속가능성 대사로도 선정되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솔루션 네트워크(UN SDSN)의 글로벌 스쿨 프로그램(Global Schools Program) 멘토이자 옹호자로서, 그는 청소년 역량 강화, 세계 시민 의식 함양, 변혁적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련한 교육자로서 그는 자신의 활동을 통해 공감 능력, 특수 교육, 윤리적 가치관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의 멘토로서 진로 멘토링을 수행하며, 공인 NLP(신경언어 프로그래밍) 실무자로서 학부모와 청소년을 위한 상담 세션도 진행하고 있다. 그의 모든 강연은 평화 교육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는 평화 교육, 여성 역량 강화,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발전시키는 데 전념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이고 해결책 중심의 접근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학교, 교육자, 국제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그녀는 차세대 리더와 변화의 주역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주고 있다. 그녀는 스스로를 '평생 학습자'라고 칭한다.

초록

국가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 강화 여성은 국가의 기반이지만, 공식 통계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역할은 종종 간과되곤 한다.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하며, 재산권 제한, 임금 불평 등, 이동을 제한하는 문화적 규범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남아시아 여성들의 영향력을 높이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목표가 아니라,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모든 시민의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다. 이러한 장벽을 허물음으로써 파키스탄은 방대한 잠재력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여성들은 지역 사회에서 변화의 핵심 동력이며, 종종 제한된 자원으로든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들은 자녀들의 주된 교육자이자 가족 건강 관리의 주도자 역할을 한다. 그들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노력은 전국적으로 더 나은 생활 조건으로 이어진다. 농촌과 도시 지역 모두에서 여성들은 지역 개발의 최전선에 서 있다. 여성들은 자조 모임을 결성하여 회원들이 소액을 저축해 가족 사업을 시작하거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러한 모임은 종종 정부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메워준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위생 및 물 관리 활동을 주도하여 이웃에 깨끗한 자원이 공급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이들을 지원하는 강력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여성들은 전문직 및 창의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며 전통적인 성 역할을 재정의하고 있다. 한때 남성이 주도하던 공학, 언론, 정보기술(IT) 등의 분야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쉽지 않다. 여성들은 종종 가족과 사회로부터 저항에 직면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공공 생활 속에서의 여성들의 존재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 도전장을 던진다. 공직에 있거나 기업 리더가 된 모든 여성은 어린 소녀들에게 롤모델이 된다. 이는 다음 세대가 성별이 아닌 능력을 바탕으로 진로를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다. 여성들은 또한 자녀의 건강과 교육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낸다.



리를 내고 있다. 어머니들은 종종 더 나은 학교 시설이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요구하기 위해 조직을 결성한다. 그들은 교육이 가족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열쇠임을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자신들이 문맹일지라도, 많은 여성들은 딸들이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싸운다. 영양과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국가의 보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지역 사회의 질병 발생률을 낮추고 있다. 파키스탄 여성들의 경제적 잠재력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크게 제한받고 있다. 많은 여성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하고 있지만, 공식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장애물이다.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여성: 참여율과 진전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은 지역 평균보다 낮다. 많은 여성이 가정에서 무급 노동을 수행하는데, 이는 경제를 지탱하지만 GDP 보고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공식 부문에서 여성은 주로 교육, 의료, 섬유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종종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남성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다. 많은 기업이 안전한 통근 수단이나 보육 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재능 있는 여성들이 일찍 노동 시장에서 물러나야 하는 경우가 많다. 창업과 경제적 자립 디지털 도구의 확산은 여성 창업가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전국의 고객에게 접근하며 집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수공예품과 패션부터 음식 서비스, 온라인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소액 금융 프로그램도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대출을 통해 여성들은 장비나 재고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여성들이 재정적 주도권을 갖게 되면 자녀의 교육과 건강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되어, 가족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기여한다. 경제적 격차 해소 경제 성장의 주요 장벽 중 하나는 여성의 재산권 부재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남성 친족의 서명 없이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는 여성들이 대규모 사업을 시작하거나 장기적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은행은 여성에 대한 대출 요건을 완화하고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상속권을 보호하는 법을 강화하여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파키스탄 여성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 파키스탄의 정치 생활은 여성에게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여성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그들의 영향력은 분명하다. 대표성은 인구의 절반이 필요로 하는 바를 반영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정치 참여의 장벽 정치계에 진출하는 여성들은 종종 협박, 자금 부족, 사회적 낙인에 직면한다. 많은 가족들이 안전 문제를 이유로 여성들이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만류한다. 정당들은 종종 여성을 2순위 후보로 취급하며, 당선 가능성이 낮은 지역에서만 공천을 준다. 선거 운동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대부분의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후원자 네트워크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인해 여성들이 지방 및 중앙 의회에서 대표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선출직 공직에서 여성의 영향력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직에 있는 여성들은 중요한 법안들을 추진해 왔다. 의회의 여성 할당 의석은 정부 내 여성 인원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 이러한 여성 의원들은 가정 폭력, 직장 내 성희롱, 아동 결혼과 관련된 입법에 주로 주력해 왔다. 그들의 존재는 여성과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의회에서 논의되도록 보장한다. 연구에 따르면, 여성이 공직에 있을 때 학교와 의료 시설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패널 토론 2

사회정치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차원적 개입: 젠더 자문단(GAT) 사례



마리아 하지파블루

은퇴 교수, 키프로스 대학교 | 키프로스

마리아 하지파블루는 영국과 미국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허버트 켈만 교수로부터 갈등 해결을 위한 '상호작용적 문제 해결(Interactive-Problem-Solving)' 접근법을 배웠고, 학자이자 실무자로서 여러 국가에서 이를 활용했다. 그는 해외 및 키프로스의 대학에서 강의했다. 그는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저서 『키프로스의 여성과 변화: 페미니즘과 갈등 속의 젠더』(2010, I.B.Tauris)는 참고서적의 반열에 올랐다. 활동가로서 그는 키프로스 여성 비정부기구인 'Hands Across the Divide'(2001년~), 'Gender Advisory Team'(2009년~) 등을 공동 설립했으며, 그 밖에도 다수의 단체를 설립했다. 또한 성평등 기술위원회 위원(2015년~현재) 및 지중해 여성 중재자 협회 키프로스 지부 위원(2017년~)을 맡고 있다.

연락처:

hadjipavlou.maria.1@ucy.ac.cy

초록

분쟁, 전쟁, 평화, 안보는 모두 젠더적 특성을 지닌 현상이다. 남성과 여성에게는 서로 다른 역할이 부여되므로, 이들은 분쟁의 결과를 다르게 경험하며 각기 다른 필요, 우려,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WPS, 2000)와 키프로스 내 젠더 자문단(GAT)의 활동을 다룰 것이다. GAT는 2009년 여성 학자, 활동가, 분쟁 해결 실무자들이 설립한 비정부 단체로, 결의안 1325호 및 이를 키프로스의 평화 및 평화구축 과정에 통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GAT의 주요 활동과 우리가 채택한 다층적 전략(Hadjipavlou and Mertan 2019) 및 이 전략이 미친 영향을 언급하고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입니다. 발표는 몇 가지 정책 권고 사항으로 마무리될 것이다.



IWPG